

 해양수산부		보 도 자 료		 
		배포 일시	2021. 6. 29.(화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	담당 자	·과장 최종욱, 사무관 서지만, 주무관 정소희, 정유경 ·☎ (044) 200-5830, 5838, 5839, 5843	
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	담당 자	·과장 이상준, 사무관 여수향 ·☎ (044) 203-4330, 4334	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29일(화) 13:00 이후 보도 가능		

바다 위 탄소중립, 한국형 친환경선박(그린십-K) 개발 착수

- 「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」 예타 통과(’22~’31, 총 2,540억원 규모)
- 수소·암모니아 등 미래 친환경선박 본격 개발

-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「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」이 지난 2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이 사업은 국제해사기구(IMO)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·해운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,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,5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.

〈사업개요〉

- (사업명)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
- (사업기간/총사업비) 2022년~2031년 / 2,540억 원(국비 1,935억 원)
- (주관부처) 해양수산부,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추진
- (지원대상)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(사업목적) 온실가스 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선박 글로벌 시장 선도
- (지원규모) 기술개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(2021년 하반기 상세기획 예정)

- 이번 사업에서는 수소·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를 활용하는 저탄소·무탄소 선박 및 전기·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,

- 육·해상 실증, 법제도 마련 및 국제 표준화를 연계하는 과정을 거쳐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 선점 및 글로벌 신시장 선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.

<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 구성도>



① (전략분야1)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및 설계기술 개발

-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70% 감축(2008년 대비)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및 설계기술 개발(암모니아 등 연료 추진기술, 전기·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중심)

② (전략분야2) 친환경선박 시험·평가 실증기술 개발

- 친환경선박 시험·평가를 통해 신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

③ (전략분야3) 친환경 연안선박 개발·실증 및 보급 기반 확보

- 연안선박용 실증기술 개발, 선박적용 및 실적(Track Record) 확보 후, 대형선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연계

④ (전략분야4) 친환경선박 국제 대응 및 국내외 표준화, 제도 개선

- 신기술 적용·상용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 법제도 개선, 국제협력, 정책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조성

- 이 사업은 2022년에 착수하여 10년간 추진할 예정으로, 올해 말까지 상세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부처 간 역할 구체화 및 사업단 구성 등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70%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, 실증 및 실적을 확보하여 친환경선박 관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,
 - 연안-대양 선박으로 이원화된 국내 조선산업과 기자재산업·해운 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친환경 대체연료, 추진시스템 기술로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또한, 「친환경선박법」 및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이번 사업을 통해 ‘바다 위 탄소중립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 사업 개념도 및 기대효과 >



-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“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자 조선·해운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,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확보는 미래시장 선점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.” 라고 강조하며,
 - “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조선·해운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,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